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업소진 비교 및 관계 분석

안 종 혁

산평초등학교

유 미 현

아주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영재학생 및 일반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학업소진을 비교하고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을 정서적으로 잘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을 감소시켜 정서적으로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일반학생이 영재학생보다 학업스트레스, 학교 학업스트레스, 과외 학업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 영재학생은 적극적 및 사회지지 추구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며 일반학생은 소극/회피적 및 공격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 일반학생은 영재학생에 비해 학업소진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 일반학생은 주당 평균 사교육(학원 및 과외 학습) 시간이 평균 이상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업소진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영재학생이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소극/회피적 및 공격적 대처방식의 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학업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학업소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초등영재, 일반학생, 학업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업소진, 사교육 시간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겪는 문제임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신병창, 2012).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성취동기와는 무관하게 학업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영재학생도

교신저자: 유미현(ymh0120@ajou.ac.kr)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신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오로지 교육열에만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재는 자신이나 가까이에 있는 부모, 선생님으로부터의 기대가 높으며(Kaplan & Geoffroy, 1993), 과흥분성, 완벽주의, 비동시성과 같은 영재적 특성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김유미, 이지은, 2010; 박경림, 2011). 연구자들에 의하면 영재는 그들의 정서적, 사회적 특성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다른 유형의 행동 방식을 사용한다(Delisle, 1988; Swaitek, 2001). 이러한 대처방식은 영재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송의열, 2002). 영재는 우월하고 무엇이든 잘한다는 편견, 높은 기대수준이 특정 영역 재능을 가진 영재에게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영재는 정서적인 어려움, 특히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 만일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면 학습된 무기력, 분노, 부적응 등의 문제로 삶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유민, 김유미, 2013). 스트레스 중에서 특별히 학교공부나 성적으로 인하여 그 일이 너무 힘들고 하기가 싫어지거나 귀찮다고 생각하여 경험하게 되는 정신적 부담과 근심, 긴장, 우울, 공포, 초조함 등과 같은 심리상태가 편하지 못한 상태를 학업스트레스라고 한다(오미향, 천성문, 1994). 또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때, 효과적인 해결 결과와 관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이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인지적이거나 행동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영재의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에 대한 부담은 정서적으로 고갈된 감정을 느끼거나, 학업에 대해 냉소적이고 분리적인 태도를 갖거나, 학생으로서 학업에 대해 무능력을 느낄 수 있는 학업소진에 이를 수 있다(이영복, 2009). 즉 학업스트레스는 단순히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서 정신적,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해 지치고, 심한 무능감을 느끼며 심지어 학업이 싫어지고 회의적이게 만드는 학업소진에까지 이르게 한다(신병창, 2012; 이현아, 2011). 이때 학업소진은 학업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또는 지나친 학업요구로 인해 나타나는 학생의 탈진현상, 학업을 향한 냉소적인 태도, 학업적인 무능감 등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징후를 의미한다(Schaufeli et al., 2002). 오랜 시간 동안 받고 있는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생기는 정서적 고갈, 학업을 향한 냉담과 낮은 개인적 성취감을 느끼는 등 정서적, 정신적 탈진 상태를 의미하며, 하위요인으로는 탈진, 냉담, 학업 무능감을 포함한다(신병창, 2012).

최근 영재교육을 향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영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과도한 기대가 증가함으로 인해 영재로 선발되는 과정이나 선발된 후에도 영재학생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박경림, 2011)로 볼 때 영재학생들이 이러한 상황에 장기적으로 놓인다면 영재학생도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업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 동안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학업소진에 대한 연구에 비해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

다. 과도한 학업스트레스에 대해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해 극복하지 못할 경우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상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심지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문경숙, 2006). 따라서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떠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소진 정도를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영재들은 아동 및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같은 또래와 비슷하게 발달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겪기도 하며, 영재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정서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겪기도 한다. 영재들은 일반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독특하고 또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영재의 스트레스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로는 송경애, 이지현(2001), 박성옥, 이진숙(2003), 하종덕, 송경애(2004)의 연구와 같이 성취압력, 완벽주의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들로부터 조현철(2010), 양연숙(2012), 최은주, 박재국, 김혜리(2013), 고유민, 김유미(2013)의 연구와 같이 영재들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비교한 선행연구 결과는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영재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더 적다는 연구(박성옥, 이진숙, 2003; 박혜진, 2001; 신병창, 2012)도 있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거나 일반학생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연구(김은정, 양연숙, 2011; 김정아, 2005; 민현숙, 양연숙, 2012; 허창재, 2002) 등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영재의 학업스트레스와 관련변인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학업소진에 대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신병창(2012)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기대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을 비교 분석하였다. 김윤경(2011)은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부모의 성취압력, 창의적 인성, 학업소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김별님(2012)의 부모의 성취압력, 성취동기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남상필, 이지연, 장진이(2012)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취 압력이 학업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영재의 학업소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부모의 성취압력, 기대 변인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신효정 외, 2012)는 보고되고 있으나 영재 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소진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현재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재들과 일반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업소진을 비교하고 영재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소진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차이는 어떠한가? 또 사교육 시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소진 차이는 어떠한가? 또 사교육 시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는 어떠한가?

넷째, 초등 영재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업소진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관찰추천, 영재성 검사, 심층면접의 별도의 절차를 통해 영재로 판별되어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수학·과학 영재학생이다. 경기도 교육청 관내 중소도시 소재 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 및 초등학교 영재학급 5, 6학년 176명과 동일한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을 다니지 않은 5, 6학년의 일반학생 1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 및 학년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성별 및 학년 분포 (단위: 명)

| 변 인 | | 영재학생 | 일반학생 |
|--------|---|------|------|
| 초등 5학년 | 남 | 44 | 41 |
| | 여 | 36 | 41 |
| 초등 6학년 | 남 | 56 | 52 |
| | 여 | 40 | 30 |
| 합 계 | | 176 | 164 |

2. 검사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업소진을 묻는 질문지 형식의 Likert식 5단계 평정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문항은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측정을 위한 31문항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측정을 위한 20문항, 학업소진 척도를 측정하기 위한 15문항이며, 전체 66문항이다.

가. 학업스트레스 검사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에서 받는 학교 학업스트레스와 학원 및 과외 수업으로 인해 받는 과외 학업스트레스를 모두 고려한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미향(1993)이 제작한 ‘학업스트레스’ 검사 도구를 참고로 하여, 박성희(2006)가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학업스트레스 척도를 김미현(2009)이 학교 학업스트레스와 과외 학업스트레스와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재구성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 학업스트레스와 과외 학업스트레스 각각을 ‘수업’, ‘성적’, ‘부모압력’의 세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수업’요인은 숙제와 수업내용에 대한 것이고, ‘성적’요인은 학업 성적에 대한 부담과 경쟁의식에 대한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부모압력’요인은 학업을

대하는 부모님의 기대와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김미현, 2009).

본 연구에서 학교 학업스트레스는 15문항, 과외 학업스트레스 16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각각의 점수를 산술하였고 두 개의 점수를 합산하여 학업스트레스 전체 점수를 산출하였다. 검사에서 사용된 각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과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표 2>와 같다.

<표 2> 학업스트레스 측정 문항 구성 및 내적신뢰도

| 하위영역 | 구성내용 | 문항번호 | 문항수 | 내적신뢰도 (Cronbach's α) |
|----------------|--------------|----------------------------|-----|---------------------------------|
| 학교 학업 스트레스 | 학교수업 스트레스 | 4, 5, 6, 7, 8, 10, 14 | 7 | .837 |
| | 학교성적 스트레스 | 1, 2, 3, 11, 12 | 5 | .840 |
| | 학교부모 압력 스트레스 | 9, 13, 15 | 3 | .799 |
| 과외 학업 스트레스 | 과외수업 스트레스 | 19, 20, 21, 22, 23, 25, 29 | 7 | .895 |
| | 과외성적 스트레스 | 16, 17, 18, 26, 27 | 5 | .909 |
| | 과외부모 압력 스트레스 | 24, 28, 30, 31 | 4 | .888 |
| 학업 스트레스 전 체 | | | 31 | .962 |

나. 스트레스 대처방식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검사 도구는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 행동 척도를 참고로 하여 박진아(2001)가 수정·보완한 검사지이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에 대하여 아동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검사지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해 적극적, 소극/회피적, 공격적, 사회지지 추구적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영역 당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김미현, 2009). 검사에서 사용된 각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과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표 3>과 같다.

<표 3> 스트레스 대처방식 측정 문항 구성 및 내적신뢰도

| 하위영역 | 구성내용 | 문항번호 | 문항수 | 내적신뢰도 (Cronbach's α) |
|------------------|--|------------------|-----|---------------------------------|
| 적극적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 행동적 반응 | 1, 5, 9, 13, 17 | 5 | .836 |
| 소극/ 회피적 | 부정적 감정을 완화 조절하거나 문제를 유보 수정하고 문제해결을 거부함으로써 직면하지 않으려는 반응 | 2, 6, 10, 14, 18 | 5 | .840 |
| 공격적 | 스트레스 상황에 심리적, 신체적, 언어적 공격 반응 | 3, 7, 11, 15, 19 | 5 | .723 |
| 사회지지 추구적 | 문제 해결이나 정서적 위안 등을 위해 다른 사람 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동 | 4, 8, 12, 16, 20 | 5 | .782 |
| 스트레스 대처방식 전 체 | | | 20 | .845 |

다. 학업소진 척도 검사

본 연구에서는 학업소진 척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언어로 수정하여 개발한 한은아(2010)의 학업소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업소진 척도는 정서적 고갈 5문항, 냉소 4문항, 개인적 효능감 6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 개인적 효능감을 묻는 긍정적 진술문항은 역채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학업무능감으로 명명된다(신병창, 2012). 검사에서 사용된 각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과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표 4>와 같다.

<표 4> 학업소진 측정 문항 구성 및 내적신뢰도

| 하위영역 | 문항번호 | 문항수 | 내적신뢰도 (Cronbach's α) |
|-------------|------------------------------|-----|---------------------------------|
| 정서적 고갈 | 1, 2, 3, 4, 5 | 5 | .890 |
| 냉소 | 6, 7, 8, 9 | 4 | .885 |
| 학업 무능감 | 10*, 11*, 12*, 13*, 14*, 15* | 6 | .903 |
| 학업소진 전 체 | | 15 | .937 |

*의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3.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업소진 척도의 배점은 학생들에게 Likert 5점 척도식으로 측정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을 부여하였으며, 학업무능감 하위영역 문항은 역채점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업소진과 관련하여 영재와 일반학생의 차이, 남녀와의 차이, 주당 평균 학원 및 과외 학습 시간에 따른 차이에 따라 평균(M), 표준편차(SD)를 산출하고,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업소진과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업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가.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비교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구하였으며,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비교

| 영역 | 영재학생(N=176) | | 일반학생(N=164) | | <i>t</i> | <i>p</i> |
|--------------|-------------|-----------|-------------|-----------|----------|----------|
| | <i>M</i> | <i>SD</i> | <i>M</i> | <i>SD</i> | | |
| 학업스트레스 전체 | 1.77 | .645 | 2.33 | .820 | - 6.998 | .000 |
| 학교 학업스트레스 전체 | 1.80 | .635 | 2.45 | .762 | - 8.524 | .000 |
| 학교수업 스트레스 | 1.64 | .572 | 2.37 | .724 | -10.222 | .000 |
| 학교성적 스트레스 | 1.93 | .816 | 2.54 | .880 | - 6.584 | .000 |
| 학교부모 압력 스트레스 | 1.97 | .992 | 2.52 | 1.080 | - 4.881 | .000 |
| 과외 학업스트레스 전체 | 1.73 | .766 | 2.21 | .981 | - 5.001 | .000 |
| 과외수업 스트레스 | 1.78 | .848 | 2.26 | 1.027 | - 4.665 | .000 |
| 과외성적 스트레스 | 1.64 | .748 | 2.11 | .973 | - 4.892 | .000 |
| 과외부모 압력 스트레스 | 1.77 | .937 | 2.27 | 1.105 | - 4.510 | .000 |

분석 결과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전체 점수를 비교한 결과 초등 영재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평균 1.77점, 일반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평균 2.33점으로 초등 일반학생이 영재학생보다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업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학교 학업스트레스가 일반학생이 영재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또한 학교 학업스트레스의 구성 영역인 학교수업 스트레스, 학교성적 스트레스, 학교부모압력 스트레스에서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초등 일반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초등 일반학생이 영재학생보다 학교에서 받는 수업, 성적, 학교 학업에 대한 부모님의 압력과 관련하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과외 학업스트레스는 일반학생이 영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과외 학업스트레스의 구성 영역인 과외수업 스트레스, 과외성적 스트레스, 과외부모압력 스트레스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초등 일반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 결과를 통해 학교 학업스트레스와 더불어 과외 학업스트레스에서도 초등 영재학생 보다 일반학생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초등 일반학생이 영재학생보다 학교 및 학원, 과외 등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반학생이 영재학생보다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여러 선행연구(김은정, 양연숙, 2011; 박진혜, 2011; 신병창, 2012; 이경희, 2008; 장소은, 2008)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하겠다. 허창재(2002)가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재교육 대상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교사와 가정에서의 지지가 높

있던 점을 감안해보면 이러한 사회적 지지로 인하여 학업스트레스가 낮아졌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영재교육을 바라보는 관심이 점점 더 증가하고 영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과도한 기대가 증가함으로 인해 영재로 선발되는 과정이나 선발된 후에도 영재 학생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경림(2011)의 연구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신효정 외(2011)의 연구와 같이 영재학생 개인 내적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단기 종단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주당 평균 사교육(학원 및 과외 학습) 시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비교

초등 영재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의 주당 평균 사교육(학원 및 과외 학습) 시간이 평균 이상일 때와 미만일 때 받는 학업스트레스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구하였으며,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6>과 <표 7>에 나타내었다.

<표 6> 영재학생의 주당 평균 사교육(학원 및 과외학습) 시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 영역 | 주당 평균 12.55시간 이상 (N=80) | | 주당 평균 12.55시간 미만 (N=96) | | t | p |
|--------------|----------------------------|-------|----------------------------|------|-------|------|
| | M | SD | M | SD | | |
| 학업스트레스 전체 | 1.79 | .718 | 1.75 | .581 | .441 | .660 |
| 학교 학업스트레스 전체 | 1.81 | .700 | 1.79 | .579 | .150 | .881 |
| 학교수업 스트레스 | 1.62 | .635 | 1.66 | .516 | -.460 | .646 |
| 학교성적 스트레스 | 1.94 | .827 | 1.93 | .811 | .084 | .933 |
| 학교부도 압력 스트레스 | 2.05 | 1.069 | 1.91 | .924 | .985 | .326 |
| 과외 학업스트레스 전체 | 1.77 | .797 | 1.70 | .743 | .603 | .547 |
| 과외수업 스트레스 | 1.80 | .917 | 1.76 | .790 | .307 | .759 |
| 과외성적 스트레스 | 1.67 | .766 | 1.62 | .736 | .455 | .650 |
| 과외부도 압력 스트레스 | 1.77 | .993 | 1.70 | .888 | .400 | .302 |

분석 결과 초등 영재학생의 사교육 시간이 평균(M=12.55)보다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위 영역 비교에 있어서도 주당 평균 과외 학습 시간이 평균 시간보다 많은 학생들의 평균값만 비교하였을 때에는 학업스트레스가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영재학생들은 일반학생과는 달리 사교육을 본인이 희망하여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교육을 받는 목적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심화적인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받는다고 응답한 연구 결과(유미현, 2011)로부터 단순히 사교육 시간의 많고 적음은 영재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초등 일반학생의 주당 평균 사교육(학원 및 과외학습) 시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비교

| 영역 | 주당 평균 8.47시간 이상 (N=76) | | 주당 평균 8.47시간 미만 (N=88) | | t | p |
|--------------|---------------------------|-------|---------------------------|-------|-------|------|
| | M | SD | M | SD | | |
| | 학업스트레스 전체 | 2.48 | .843 | 2.19 | | |
| 학교 학업스트레스 전체 | 2.50 | .805 | 2.41 | .725 | .745 | .457 |
| 학교수업 스트레스 | 2.34 | .758 | 2.39 | .698 | -.434 | .665 |
| 학교성적 스트레스 | 2.65 | .957 | 2.44 | .803 | .071 | .139 |
| 학교부모 압력 스트레스 | 2.64 | 1.051 | 2.42 | 1.102 | 1.302 | .195 |
| 과외 학업스트레스 전체 | 2.47 | .975 | 1.99 | .937 | .622 | .002 |
| 과외수업 스트레스 | 2.56 | 1.049 | 1.99 | .938 | 3.619 | .000 |
| 과외성적 스트레스 | 2.29 | .992 | 1.95 | .932 | 2.323 | .021 |
| 과외부모 압력 스트레스 | 2.52 | 1.097 | 2.06 | 1.071 | 2.743 | .007 |

분석 결과 초등 일반학생의 사교육 시간이 평균($M=8.47$) 시간보다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을 비교한 결과 사교육 시간이 평균보다 많은 집단이 적은 집단보다 학업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학업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인 학교 학업스트레스 및 그 구성 영역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과외 학업스트레스 및 그 구성 영역인 과외수업, 과외성적, 과외부모압력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로부터 초등 일반학생에게 사교육 시간이 평균보다 많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중 과외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 학습시간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송은영(2007), 조한익(2008)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즉 일반학생은 영재학생과는 달리 사교육 시간이 많은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2.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비교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구하였으며,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비교

| 하위 영역 | 영재학생(N=176) | | 일반학생(N=164) | | t | p |
|----------|-------------|------|-------------|------|--------|------|
| | M | SD | M | SD | | |
| 적극적 | 3.46 | .897 | 2.98 | .785 | 5.317 | .000 |
| 소극/회피적 | 2.49 | .804 | 2.67 | .710 | -2.052 | .041 |
| 공격적 | 2.32 | .883 | 2.69 | .821 | -3.988 | .000 |
| 사회지지 추구적 | 2.80 | .919 | 2.60 | .805 | 2.218 | .034 |

분석 결과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 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적극적 대처방식은 초등 영재학생($M=3.46$)이 일반학생($M=2.98$)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p<.001$). 소극/회피적 방식은 초등 일반학생($M=2.67$)이 영재학생($M=2.49$)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5$). 공격적 대처방식 사용에 있어서는 초등 일반학생($M=2.69$)이 영재학생($M=2.32$)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p<.001$).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방식에 있어서는 초등 영재학생($M=2.80$)이 일반학생($M=2.60$)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5$). 위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초등 영재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서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사회지지 추구적 방법을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영재아동이 또래 일반아동과는 다른 스트레스 대처 행동이나 전략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Coleman, 1992; Delisle, 1988; Swiatek, 2001)와 맥을 같이 한다. 송의열(2002)은 영재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경우 도전하고 스스로를 자극하는 방식을 생각하거나 선택적 지지를 주고받으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이경희(2008)는 영재들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서 일반아에 비해 문제 중심 대처를 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영재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있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소진

가.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소진 비교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소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구하였으며,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소진 비교

| 영역 | 영재학생(N=176) | | 일반학생(N=164) | | t | p |
|--------|-------------|------|-------------|-------|---------|------|
| | M | SD | M | SD | | |
| 학업소진전체 | 1.99 | .701 | 2.84 | .793 | -10.508 | .000 |
| 정서적 고갈 | 1.99 | .851 | 2.71 | 1.028 | -10.222 | .000 |
| 냉소 | 1.89 | .921 | 2.74 | 1.058 | - 6.584 | .000 |
| 학업 무능감 | 2.06 | .771 | 3.02 | .781 | - 4.881 | .000 |

분석 결과 초등 영재학생의 학업소진 정도는 평균 1.99점, 일반학생의 학업소진 정도는 평균 2.84점으로 초등 일반학생이 영재학생보다 학업소진 정도가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소진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고갈, 냉소, 학업 무능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3가지 하위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업소진의 하위 영역인 정서적 고갈에서는 초등 일반학생이 영재학생에 비해 정서적 고갈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냉소와 학업 무능감에서도 초등 일반학생이 영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 일반학생이 영재학생보다 학업소진 전체, 학업소진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이는 학교 소진 경험이 일반학생이 영재학생보다 더 높다고 보고한 홍승표(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나. 주당 평균 사교육(학원 및 과외 학습) 시간에 따른 학업소진 비교

초등 영재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의 사교육 시간에 따른 학업소진 정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구하였으며,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표 10>과 <표 11>로 나타냈다.

<표 10> 영재학생의 주당 평균 사교육(학원 및 과외학습) 시간에 따른 학업소진

| 영역 | 주당 평균 12.55시간 이상 ($N=80$) | | 주당 평균 12.55시간 미만 ($N=96$) | | t | p |
|---------|--------------------------------|------|--------------------------------|------|-------|------|
| | M | SD | M | SD | | |
| 학업소진 전체 | 1.98 | .785 | 1.99 | .625 | -.084 | .933 |
| 정서적 고갈 | 2.00 | .952 | 1.98 | .761 | .228 | .820 |
| 냉소 | 1.84 | .997 | 1.92 | .856 | -.559 | .577 |
| 학업 무능감 | 2.07 | .839 | 2.06 | .714 | .036 | .972 |

분석 결과 초등 영재학생의 경우 주당 사교육 시간이 평균 이상인 학생과 미만인 학생과는 학업소진 전체 및 3개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등 영재학생에게 주당 사교육(평균 학원 및 과외학습) 시간은 학업소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일반학생의 주당 평균 사교육(학원 및 과외학습)시간에 따른 학업소진

| 영역 | 주당 평균 8.47시간 이상 ($N=76$) | | 주당 평균 8.47시간 미만 ($N=88$) | | t | p |
|---------|-------------------------------|-------|-------------------------------|-------|-------|------|
| | M | SD | M | SD | | |
| 학업소진 전체 | 2.98 | .819 | 2.72 | .754 | 2.079 | .039 |
| 정서적 고갈 | 2.91 | 1.063 | 2.53 | .971 | 2.352 | .020 |
| 냉소 | 2.84 | 1.091 | 2.65 | 1.027 | 1.157 | .249 |
| 학업 무능감 | 3.11 | .838 | 2.94 | .723 | 1.414 | .159 |

분석 결과 초등 일반학생의 경우 주당 사교육 시간이 평균 이상인 학생이 미만이 학생에 비해 학업소진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학업소진의 하위 영역 중에서는 정서적 고갈 영역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즉 초등 일반학생

에게 평균 시간 이상의 사교육(학원 및 과외학습)은 학업소진 정도가 높아지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균 이상의 높은 학원 및 과외학습 시간은 초등 일반학생들이 정서적 고갈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실과 이지연(2012)과 조혜진(2012)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학생은 학업 과제가 많을수록 더 많은 학업소진을 경험한다고 한다. 영재학생과는 달리 일반학생은 사교육 시간이 많아지면 그로 인한 과제의 부담이 커져서 학업소진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초등 영재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업소진과의 관계

가. 영재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관관계

초등 영재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영역 및 하위 영역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영재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상관관계

| | 학업 스트 레스 전체 | 학교 학업 스트 레스 | 학교 수업 스트 레스 | 학교 성적 스트 레스 | 학교 부모 압력 스트 레스 | 과외 학업 스트 레스 | 과외 수업 스트 레스 | 과외 성적 스트 레스 | 과외 부모 압력 스트 레스 |
|-------------|----------------------|----------------------|----------------------|----------------------|----------------------------|----------------------|----------------------|----------------------|----------------------------|
| 적극적 | -.067 | -.067 | -.013 | -.079 | -.088 | -.057 | -.018 | -.059 | -.099 |
| 소극/ 회피적 | .368** | .328** | .308** | .286** | .243** | .345** | .277** | .368** | .322** |
| 공격적 | .452** | .453** | .479** | .359** | .315** | .385** | .333** | .367** | .364** |
| 사회지지 추구적 | -.004 | -.018 | .042 | .006 | -.123 | .007 | .017 | .041 | -.045 |

* $p < .05$, ** $p < .01$

분석 결과 초등 영재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및 그 하위 영역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 영역인 소극/회피적 영역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 = .243 \sim .368, p < .001$)를 나타내고 있다. 또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 영역인 공격적 영역에서도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 = .315 \sim .479, p < .001$)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초등 영재학생의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이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소극/회피적 방식 및 공격적 방식 사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영재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상관관계

초등 영재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영역 및 하위 영역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영재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간의 상관관계

| | 학업 스트레스 전체 | 학교 스트레스 | 학업 스트레스 | 학교 수업 스트레스 | 학교 성적 스트레스 | 학교 부모 압력 스트레스 | 과외 학업 스트레스 | 과외 수업 스트레스 | 과외 성적 스트레스 | 과외 부모 압력 스트레스 |
|------------|------------------|------------|------------|------------------|------------------|------------------------|------------------|------------------|------------------|------------------------|
| 학업소진 전체 | .604** | .570** | .498** | .524** | .436** | .542** | .464** | .470** | .570** | |
| 정서적 고갈 | .683** | .621** | .569** | .532** | .493** | .631** | .562** | .558** | .617** | |
| 냉소 | .594** | .548** | .472** | .495** | .443** | .542** | .462** | .473** | .571** | |
| 학업 무능감 | .271** | .287** | .233** | .307** | .183* | .220** | .169* | .178* | .274** | |

* $p < .05$, ** $p < .01$

분석 결과 초등 영재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소진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r = .604, p < .001$). 또,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영역 모두와 학업소진의 하위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영재학생이 학업소진 및 그 하위 영역인 정서적 고갈, 냉소, 학업 무능감 영역 모두에서 수치가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다. 영재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소진과의 상관관계

초등 영재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소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변인의 하위 영역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을 통해 얻은 상관계수는 <표 14>와 같다.

<표 14> 영재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소진 간의 상관계수

| | 적극적 | 소극/회피적 | 공격적 | 사회지지 추구적 |
|---------|---------|--------|--------|----------|
| 학업소진 전체 | -.185* | .272** | .357** | -.092 |
| 정서적 고갈 | -.070 | .334** | .374** | .029 |
| 냉소 | -.059 | .376** | .429** | -.029 |
| 학업 무능감 | -.307** | .011 | .125 | -.213** |

* $p < .05$, ** $p < .01$

분석 결과 초등 영재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소진 및 그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및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영역인 적극적 방식과 학업소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185, p < .05$). 즉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방식의 사용이 높은 영재학생이 학업소진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 영역인 소극/회피적 대처방식과 공격적 대처방식은 학업소진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1$). 즉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 영역인 소극/회피적, 공격적 대처방식의 사용이 높은 영재학생이 학업소진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영역인 적극적 대처방식은 학업소진의 학업 무능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307, p<.001$). 즉,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방식의 사용이 많은 영재학생이 상대적으로 학업 무능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영역인 소극/회피적 및 공격적 대처방식은 학업소진의 하위영역 중 정서적 고갈, 냉소 영역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소극/회피적 및 공격적 대처방식의 사용이 많은 영재학생이 정서적 고갈과 냉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영역인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방식은 학업소진의 하위 영역인 학업 무능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213, p<.01$). 즉,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영재학생이 학업 무능감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영재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초등 영재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영재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 독립변수 | 학업소진 I | | | 학업소진 II | | | 학업소진 III | | | 학업소진 IV | | |
|------------|------------------------------|------|----------|------------------------------|------|----------|------------------------------|------|----------|------------------------------|------|----------|
| | SE | B | t |
| (상수) | .123 | | 6.747*** | .126 | | 7.080*** | .124 | | 7.241*** | .111 | | 8.142*** |
| 학업스트레스 | .066 | .604 | 9.998*** | .119 | .423 | 3.867*** | .190 | .028 | .161 | | | |
| 과외부모압력스트레스 | | | | .082 | .216 | 1.978* | .093 | .397 | 3.187** | .050 | .414 | 6.207*** |
| 학교성적스트레스 | | | | | | | .094 | .311 | 2.844* | .057 | .325 | 4.875*** |
| 통계량 | $R^2=.365$ $F=99.957$ *** | | | $R^2=.379$ $F=52.772$ *** | | | $R^2=.407$ $F=39.319$ *** | | | $R^2=.407$ $F=59.299$ *** | | |

* $p<.05$, ** $p<.01$, *** $p<.001$

초등 영재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스트레스 전체는 $R^2=.365$ 로서 학업소진 총 변화량의 36.5%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 값은 99.957로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과외 부모압력스트레스, 학교 성적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요구가 학업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은영(201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즉 과외에 대한 부모압력 스트레스 및 성적 스트레스 같은 학업요구가 영재학생의 학업소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초등 영재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영재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 독립변수 | 학업소진 I | | | 학업소진 II | | | 학업소진 III | | |
|-------|--------|------------------------------|----------|---------|------------------------------|----------|----------|------------------------------|-----------|
| | SE | B | t | SE | B | t | SE | B | t |
| (상수) | .140 | | 9.565*** | .221 | | 8.618*** | .221 | | 7.835*** |
| 공격적 | .056 | .357 | 5.021*** | .055 | .382 | 5.491*** | .059 | .284 | 3.840*** |
| 적극적 | | | | .054 | -.227 | -3.266** | .056 | -.305 | -4.257*** |
| 소극회피적 | | | | | | | .068 | .259 | 3.314** |
| 통계량 | | $R^2=.127$ $F=25.208$ *** | | | $R^2=.178$ $F=18.641$ *** | | | $R^2=.228$ $F=16.809$ *** | |

* $p<.05$, ** $p<.01$, *** $p<.001$

분석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영역인 공격적, 적극적, 소극 회피적 대처방식은 학업소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며 전체 학업소진의 22.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극적 대처방식은 B 값이 음수로 나온 것으로 보아 종속변수인 학업소진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적극적 대처방식은 영재학생의 학업소진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문제 중심의 적극적 대처방식이 영재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낮춘다는 양연숙(2012)의 연구 결과로 볼 때 이와 같은 적극적 대처방식의 사용은 학업소진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재학생의 스트레스 및 학업소진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에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영재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업소진을 비교하고, 학업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로부터 얻은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영재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모두에서도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 초등 영재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학교 및 학원, 과외 활동에서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반학생이 영재학생보다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여러 선행연구(김은정, 양연숙, 2011; 박진혜, 2011; 이경희, 2008; 장소은, 2008; 신병창, 201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영재로 선발되는 과정이나 선발된 후에도 영재 학생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박경림(2011)의 연구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초등 영재학생 및 일반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학업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초등 영재학생의 주당 평균 사교육(학원 및 과외학습) 시간이 평균 이상, 미만인 집단에서는 학업스트레스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일반학생의 경우 주당 평균 사교육(학원 및 과외학습) 시간이 평균 이상인 집단의

학업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초등 영재학생은 적극적 및 사회지지 추구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일반학생은 소극/회피적 및 공격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희(2008)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서 문제 중심 대처를 하는 학생에 있어 영재아가 일반아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재학생이 일반학생 보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영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선행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초등 영재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학업소진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소진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영재집단이 일반집단 보다 학업소진 정도가 낮게 나타난 신병창(2012)의 연구와 일치한다. 초등 일반학생은 본인의 성취의지와는 무관하게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파생되는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서적 고갈, 냉소, 학업 무능감의 학업소진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판단된다. 초등 영재학생은 학업스트레스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당 평균 사교육(학원 및 과외학습) 시간이 평균 이상, 미만인 집단에서 학업소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학생은 주당 평균 학원 및 과외 학습 시간이 평균 이상인 집단이 미만인 집단보다 학업소진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일반학생에게 학원 및 과외 학습 시간은 학교 학습 시간 외에 더 많은 학습을 강요하게 함으로써 초등 일반학생에게 더 많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고, 이는 학업소진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학업소진 정도를 더 높게 지각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초등 영재학생 및 일반학생에게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지나친 성취를 요구하거나 지나친 사교육은 학업소진 정도를 높게 할 수 있으므로 학교 및 가정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 판단된다.

넷째, 영재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소극/회피적 및 공격적 대처방식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은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방식은 학업소진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과외 부모압력 스트레스, 학교 성적스트레스는 학업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영역인 공격적, 적극적, 소극 회피적 대처방식은 학업소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 대처방식은 학업소진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지 못하거나 학업소진 정도를 높게 지각하게 하는 등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에 학업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 방법 중 공격적, 소극회피적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학업소진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영재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적극적 및 사회지지 추구적 방식의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업소진 정도를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이 느끼는 학업스트레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하여 심도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초등 영재학생 및 일반학생들의 학업소진 정도를 낮추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국내에서는 초등 영재학생의 학업소진과 관련하여 연구된 결과가 많지 않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학업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련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본다면 학업소진 정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소진이 높아진다는 일반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중학생 영재, 고등학생 영재를 대상으로 한 학업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업소진에 대한 연구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횡단연구의 단점을 보완한 단기 종단연구를 통해 영재학생들의 정서적 특성 변화에 따른 학업소진의 변화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 고유민, 김유미 (2013). 영재아 대상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이 영재아의 스트레스 인식 및 대처에 미치는 효과. **영재와 영재교육**, 12(3), 135-157.
- 김미현 (2009).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김별남 (2012). **부모의 성취압력, 성취동기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김영실, 이지연 (2012). 초등학생에게 요구되는 과중한 학업과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행정**, 10(3), 114-126.
- 김유미, 이지은 (2010). 강렬한 삶을 살아가는 영재의 이해와 상담. S. Daniels & D. Piechowski (EDS.) (2008), *Living with Intensity: Understanding the sensitivity, excitability, and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adolescents, and adults*. 서울: 아카데미 프레스.
- 김윤경 (2011).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부모의 성취압력, 학업소진,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김은정, 양연숙 (2011). 영재아와 일반아의 시험불안,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효능감 비교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10(1), 123-142.
- 김정아 (2005). **초등정보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비교**.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남상필, 이지연, 장진이 (2012). 학업성취 압력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감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21(3), 219-230.

- 문경숙 (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9(5), 143-157.
- 민현숙, 양연숙 (2012).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완벽주의, 학업스트레스 및 학습몰입 비교. **영재교육연구**, 22(1), 157-171.
- 민하영, 유안진 (1998).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아동학회지**, 19(2), 77-96.
- 박경림 (2011).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비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박성욱, 이진숙 (2003). 영재와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 비교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3), 225-245.
- 박성희 (2006). 아동의 학교학업 스트레스 및 과외학업 스트레스와 무력감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박진아 (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박진혜 (2011).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이 학급에서 받는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박혜진 (2001). **영재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 심리적 적응, 자아 존중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송경애, 이지현 (2001). 중학교 과학영재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영재교육연구**, 11(2), 23-37.
- 송은영 (2007). **초등학생의 과외 특성에 따른 과외 스트레스 및 학업 자아개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 송의열 (2002). 영재 아동의 사회 정서적 특성과 스트레스 대처 행동의 이해. **영재와 영재교육**, 1(2), 69-95.
- 신병창 (2012). **초등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기대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신효정, 김보영, 이민영, 노현경, 김근화, 이상민 (2011). 중학생의 정신건강과 학업소진의 단기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 학보**, 8(2), 133-152.
- 신효정, 최현주, 이민영, 노현경, 김근화, 장유진, 이상민 (2012).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억제효과를 중심으로 한 단기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 학보**, 9(2), 289-309.
- 양연숙 (2012).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효과. **영재교육연구**, 22(4), 841-853.
- 오미향 (199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분석과 그 감소를 위한 명상훈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오미향, 천성문 (199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분석과 그 감소를 위한 명상훈

- 련의 효과. **서강대학교 학생상담연구소 인간이해**, 15, 63-96.
- 유미현 (2011).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사교육 실태 및 정서적 안녕감, 스트레스, 우울 비교 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경희 (2008). **영재아와 일반아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 이영복 (2009). **청소년의 학업소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은영 (2014). **학업요구와 학업소진 관계에서 학업통제감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현아 (2011). **완벽주의가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 동기와 목표과정의 매개효과 및 대처유연성의 조절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장소은 (2008). **영재와 일반 중학생의 학업 및 진학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조한익 (2008). **과의학습과 학습습관이 학업성취와 학교적응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조현철 (2010). 영재학생들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학교적응, 스트레스정도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간 관계. **영재와 영재교육**, 9(1), 121-140.
- 조혜진 (2012). **고등학생의 과도한 학업요구와 학업소진과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실태내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최은주, 박재국, 김혜리 (2013). 초등학교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및 학교적응 수준 비교.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4(1), 305-322.
- 하종덕, 송경애 (2004). 과학영재의 스트레스, 완벽성, 낙관성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영재교육연구**, 14(1), 47-64.
- 한은아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소진 및 초등학생 학업소진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허창재(2002). **영재아동의 스트레스요인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홍승표 (2010). 영재·잠재영재·일반학생의 학교 소진 경험 및 주관적 안녕에 관한 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9(1), 75-96.
- Coleman, M. R. (1992). A comparison of gifted/LD and average /LD boys cope with school frustration. *Journal for education of the gifted*, 15, 239-265.
- Delisle, J. R. (1988). Stress and the gifted child. *Understanding Our Gifted*, 1, 15-16.
- Kaplan, L. S., & Geoffroy, K. E. (1993). Copout or Burnout? Counseling strategies to reduce stress in gifted stress in gifted students. *School Counselor*, 40, 247-253.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Personal control stress and coping process: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39-852.
- Schaufeli, W. B., Martínez, I. M., Pinto, A. M., Salanova, M., & Bakker, A. B. (2002).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 464-481.

Swiatek, M. A. (2001). Social coping among gifted high school students and its relationship to self-concep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19-30.

= Abstract =

Comparison of Academic Stress, Stress Coping and Academic Burnout between Elementary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and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Jong-Hyuk Ahn

SanPyung Elementary School

Mi-Hyun Yoo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elementary gifted student's academic stress, stress coping and academic burnout with those of general students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tress, stress coping and academic burnout. There is a significant meaning in promoting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by reducing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burnouts, as well as providing fundamental data to understand and mentor elementary gifted student and general students emotionally.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ifted students' academic stress, school stress, and after school academic stres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general students'. Seco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lementary gifted students used more of active and socially supported ways to cope with stress while the general students use more of passive/evasive and aggressive ways to cope with stress. Thir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core of gifted students' academic burnout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regular students', and among general students, the students who spent more time than average time in the private education per week had significantly higher academic burnouts compared to the students who didn't. Fourth,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lementary gifted students with high academic stress used more passive/evasive and aggressive ways to cope with stress.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it appear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burnou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academic stress and stress coping affected on academic burnout significantly.

Key Words: Elementary gifted students, General students, Academic stress, Stress coping, Academic burnout, Time in the private education

| |
|-----------------------|
| 1차 원고접수: 2014년 3월 20일 |
| 수정원고접수: 2014년 4월 16일 |
| 최종게재결정: 2014년 4월 16일 |